

기존 잡지들 깬 본격 시전문지 문화

계간지·반년간지 형태로 속속 출간... 모두 10여종에 이르러

다양한 장르의 문학작품을 수록하는 종합문예지와는 성격을 달리하는 시전문지가 최초로 선보인 지 70년이 지난 지금, 국내에서 발간되고 있는 시전문지는 모두 10여종에 이른다.

1921년 5월에 창간된 「薔薇村」 이후 동인지 형식의 수많은 시전문지가 출간됐지만, 대부분 '3호잡지'라는 속칭으로 불릴만큼 그 수명은 단명에 그쳤다. 그러던 것이 60년대말과 70년대 초반에 이르러 잡지의 형태를 제대로 갖춘 시전문지인 「現代詩學」 「詩人」 「詩文學」 「心象」 「詩와 意識」 등이 창간되면서 본격적인 시전문지 문화가 형성되었다. 「詩人」을 제외한 그밖의 잡지들은 현재까지 남아 있으며, 여기에 '시의 전성기'로 지칭되는 80년대 후반에 새로운 편집과 목소리를 내세운 잡지들이 가세했다. 월간지 일변도의 기존 잡지들을 깨고 계간지나 반년간지·연간지로 속속 출간된 시전문지들은 시단의 활성화와 늘어나는 시인들의 활동무대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환영받고 있는 형편이다.

「현대시학」 비롯, 본격 시전문지 등장

먼저 이들 가운데 창간연도가 앞선 잡지들은 거의가 월간지로 간행되며, 부분 계도수정도 있었으나, 창간 당시의 편집체제나 목적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제작되고 있다. 1969년에 창간된 「現代詩學」은 박목월·박두진·김춘수·구상씨 등을 편집위원으로 특정한 이념적 지향보다는 시인들의 문학적 의욕을 고취시키는 지면확보에 일차적 의미를 두고 출발했다. 여타의 잡지와는 다르게 작품계를 우선하는 방침을 세운 「現代詩學」은, 70년대 후반 시조를 많이 수용하는 특색을 보이기도 하지만, '살림'을 맡았던 전봉건씨의 타계로 시인 정진규씨가 주간이 되면서 면모를 일신하고, 88년 9월호부터 기획특집을 위주로 80년대에 등단한 신인발굴에 주력하고 있다.

「現代詩學」과 비슷한 시기에 창간된 「詩文學」은 현대문학사의 조연현 주간과 「詩文學」의 현 주간인 문덕수씨 등이 출자해 「現代文學」의 자매지로 펴낸 특별한 경우. 금년 6월호로 통권 239호가 발행된 「詩文學」은 "어떤 이데올로기나 창작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성의 원칙에 의거한 민족문학을 추구한다"는 목적으로 구상·김동리·서정주씨 등 원로문인들로 구성된 편집고문단을 두고 전통적이고 신보수적인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김병걸과 원형갑씨 간의 리얼리즘 논쟁의 장이 되기도



국내에서 발간되는 다양한 시전문지들

했던 「詩文學」은, 70년대의 변모를 거쳐 80년대 후반에는 '북방문학' 특집을 기획하는 등 유행성을 모색하기도 한다. 박목월씨를 편집발행인으로 출발한 「心象」 역시 초기에는 김현의 '시와 시인을 찾아서'를 연재하는 등 작품보다 시론쪽에 치중하는 특색을 나타냈으나, 80년대 중반부터는 면수를 대폭 줄임과 동시에 시론을 줄이는 편집변화를 도모해, 현재는 작품위주의 편집체제를 굳혔다. 그동안 이 잡지를 통해 등단한 시인만도 1백여명을 헤아린다.

70년대에 시작된 또 하나의 시전문지인 「詩와 意識」은 이상의 잡지와는 다른 계간지로 출발, 모더니즘을 집중적으로 소개한 잡지. 편집고문·편집위원·기획위원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는 이 잡지는 근래에 들어서서는 시대별 특집을 게재하기도 했다. 최근호인 91년 봄호에는 중국연변 동포시인들의 작품 43편을 평론과 함께 신기도 한편 '빛과 구원의 문학상'을 제정해 시상하고 있는데, 금년 수상자는 성찬경씨였다.

80년대 후반은 대부분 계간지 형태

80년대 후반기에 창간된 시전문지들은 계간지로 모습을 드러낸 잡지가 많다는 외형상의 특징을 갖는데, 창간 3돌을 맞는 「한국시」는 시조·동시·평론·수필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게재하는 유일한 월간지이다.

91년 봄호로 통권 6호를 펴낸 「현대시사상」(고려원)은 시인 이승훈씨가 책임편집인으로 위촉돼, 작품 위주가 아닌 시집서평이나 기획기사·논문·자료 등 시이론에 무게중심을 두

고 있다. 특히 해외문학이론의 국내소개에 상당한 공헌을 한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며, 최근호에는 '페미니즘'에 관한 외국이론가들과 국내 필진들의 글을 담았다. 시 독자층의 대중적 확산이라는 방향성을 견지하며, 88년 겨울호로 창간된 「현대시세계」(청하)는 저널리즘을 바탕으로 한 흥미와 지적 만족을 동시에 전한다는 편집방침을 채택하고 있다. 젊은 세대의 잡지임을 표방하고 나선 「현대시세계」의 편집위원인 김정란·남진우·류철균·이윤택·하재봉·이광호씨 등 그 구성원에서도 그 의도가 짐작된다. 신작시와 평론, 에세이, 서평·해외시 소개 외에도 재수룩시란을 마련한 점이 특징적. 이와 함께 금년 봄호가 창간호인 「시와 시학」은 기왕의 시전문지들이 시인들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에 반해, 대학에서 詩論을 전공하는 국문학자들이 주축이 돼 주목받고 있다. 정현기·최동호·조남현·권영민·김재홍교수 등 현직 교수들이 대거 참여한 이 잡지는, 현대시 1백년에 대한 창작과 비평의 시사적 종합평가 및 활성화 시도를 과제로 내세우고 '새로운 시인상과 평론상'을 제정 신인발굴에도 힘을 예정이다. 더욱이 전공논문과 비평 및 교양이 될 내용을 수록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삶과 사회의 동시 쇄신과 성찰이라는 창간이념을 표방한 시전문지 「시와 시인」(정민)은 광재구·임우기·현준만·이재무씨를 중심으로 동인지적 편향성을 지양한다는 취지에서 90년 하반기에 창간한 반년간지. 창간호에는 신경림의 시세계를 조망한 평론과 자전한 시

편을 실었고, 권두평론(김병익) 시(오규원·김남주)도 수록했으며, 강은교·도종환의 창작론도 함께 게재했다.

또다른 반년간지이면서 「시와 시인」과는 전혀 다른 편집으로 발간되는 것이 현암사에서 펴내고 있는 「오늘의 시」. 문학매체에 발표되는 시작품을 엄선했다 재수룩하는 이 잡지는, 김철·최두석·홍정선씨 등이 참여해 선정을 맡는 한편 91년 상반기 편집위원으로는 박철화·남진우·박혜경씨가 위촉돼, 그 시기의 문학적 의미와 시적 성과를 진단한다. 작품수록 외에도 집중평론이나 좌담·기획평론 등의 기획을 마련하고 있다. 통권 제5호인 90년 하반기호에는 '오늘의 시인'란을 신설, 시인 고진하씨의 시세계를 분석하고 있다.

재수룩 전문지로 실천문학사가 88년부터 펴내는 연간지인 「올해의 시」는 일년동안 출판된 신작 시집들 가운데, 민족문학의 성과를 대변할 만한 시집 10권을 선정해 각 시집에서 대표되는 시 10편 안팎을 추려 모은 것이다. 1991년 호에는 평론가 강형철·김태현씨가 선정 작업을 벌여, 고은의 「아침이슬」 신경림의 「길」 이성복의 「그 여름의 끝」 등이 해설과 함께 실렸다.

객관성 전제한 자정작업 필요

예나 지금이나 시전문지가 안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은 경제적 어려움에 있을 수밖에 없고, 줄지어 창간되는 시전문지를 반갑게 여기는 한편, 용두사미로 끝을 맺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높은 게 사실이다. 날로 시인이 늘어나고 그들의 욕구를 채워줄 지면의 마련이라는 측면에서는 환영할 만하지만, 전문지의 개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간간히 나오고 있다.

전문지 자체가 아마추어리즘에 빠지는 혼선을 빚어서는 안된다고 말하는 정진규씨(시인·현대시학 주간)는, "대중지와도 구분이 안되는 체제가 가장 경계해야 할 문제이다. 스스로의 거르기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뿐더러 객관성을 전제로 한 자정작업과 파생되는 불만·갈등 요소를 해소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인다.

—최태원 기자